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생활을 통해 본

주거문화 비교에 관한 연구*

- 멜버른(Melbourne)을 중심으로 -

이 영 심(성균관대 연구교수) · 이 상 해(성균관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인과 호주 교민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의 주거 문화를 비교문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지역은 호주의 중심 도시인 멜버른(Melbourne)이었으며 연구 시기는 2004년 7월 19일-9월 24일 사이였다. 조사대상 가정은 호주인 53가정, 호주교민 52가정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각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LDK 유형은, 호주인의 경우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유형(45.3%)이 가장 많았고 한인의 경우는 거실이 독립되고 부엌과 식사실이 함께 있는 유형(44.2%)이 가장 많았다. 부엌과 거실의 연결은 호주인은 통합(54.7%)을 선호하는 반면 한인은 분리(59.6%)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두 집단 모두 부엌이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2. 각 실에서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호주인과 한인 모두 거실을 가족단란의 중심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거실에서 다림질 등의 가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침실의 경우 호주인은 부부취침과 독서 등을 행하는 개인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반면, 한인은 개인 활동 이외에 아이 놀이와 다림질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3. 입식과 좌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호주인의 경우 손님취침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입식이었다. 한인들 역시 대부분의 활동을 입식으로 하고 있었으나 손님취침과 김치 버무리기 등의 작업에서는 좌식의 성향이 강하였다.
4. 각 실별 바닥재를 분석한 결과, 거실의 경우 호주인은 나무 바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인은 카펫과 나무의 분포가 비슷하였다. 침실은 두 집단 모두 카펫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엌은 호주인은 나무, 한인은 타일이 많았다. 욕실은 두 집단 모두 타일이 일반적이었다. 호주인은 카펫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으나 한인은 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난방방식은 호주인과 한인 모두 공기를 덥혀서 공급하는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이 일반적이었다. 호주인은 덕티드 히팅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으나 한인은 높지 않았다.
6. 주택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호주인과 한인 모두 거실이었으며 주택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장 잘 꾸며놓고 싶어 하는 공간 역시 거실로 파악되었다.
7. 실내 조도에 대하여 호주인의 경우 현재의 조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부분조명을 선호한 반면, 한인은 조도가 낮다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고 전체의 반 이상이 백열등을 형

* 본 연구는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광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8. 주택을 선택할 때에 호주인이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주택의 위치, 방향, 평면계획, 전망 등이었으며 한인은 주택의 방향, 주택의 위치, 주택의 관리상태, 평면계획 등을 고려하였다.